

달크로즈 교수법에 기초한 영아용 그림책의 리듬 분석 및 활용 방법 제안 연구

조 아 라*

본 연구는 달크로즈의 리듬교수법을 바탕으로 리듬을 활용한 영아용 그림책 읽기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방법은 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선정한 만 2세 영아 그림책 8권을 대상으로, 각 그림책에서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텍스트를 분석 범주로 하여 이를 달크로즈의 리듬요소인 시간-공간-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국내외 달크로즈 리듬에 대한 연구에 나타난 달크로즈 리듬의 요소를 기초하여 연구자가 고안하였으며, 텍스트의 리듬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는 영유아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 언어 발달, 신체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리듬을 주고받고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교사의 일방적인 그림책 읽어주기가 아닌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읽는 능동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가 보다 풍부하고 즐겁게 그림책 읽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달크로즈, 리듬, 그림책, 신체리듬, 언어리듬

차 례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달크로즈 리듬교수법 | 1. 시간의 표현 |
| III. 연구 방법 | 2. 공간의 표현 |
| 1. 분석대상 | 3. 힘의 표현 |
| 2. 분석방법 | 4.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
| 3. 분석절차 | V. 결론 |
| | 참고문헌 |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플러스 연구원

I. 서론

영아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말이 트는 영아들의 언어사용에 가장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영아기는 언어발달의 측면에서 전 생애 중 가장 폭발적인 어휘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알고 있다(Goldfield & Reznick, 1990; Nelson, 1973). 이로 인해 영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언어교육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영아의 언어발달과 상상력,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그림책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그림책으로 하는 교육에 관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박선희, 김현희, 2006; 김정원, 남규, 2010).

그림책은 단순히 글과 그림이 있는 것의 의미를 넘어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Russell, 1991), ‘문학과 미술이라는 예술 형식의 독특한 결합’(Nodlman, 1988)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글과 그림, 여백을 통해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면서 영아들은 더 일찍 능동적 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이송은, 2006), 영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그림책들의 등장은 영아교육현장에서 그림책 읽기 활동을 더욱 촉구시키고 있다. 영아기 그림책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그림책이 영아의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상상력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인성 발달, 심미적 감성의 발달, 정체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김세희, 현은자, 1996; 박선희, 김현희, 2006).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그림책의 특성을 활용하여 영아의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상상력, 문제해결능력, 감정이입능력, 인성 발달을 도모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서정숙, 남규, 2010).

영아들은 그림만으로는 내용을 읽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읽어주는 글이 함께 필요하다(남규, 2009). 즉, 그림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한다. 성인이 읽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언어의 소리 부분에 의지하고, 그림을 보는 것은 언어의 이미지화에 의존하며, 이 때 영아는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 인간 체험의 교류를 경험한다(김주아, 2008 재인용). 영아들이 그림책을 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나 부모가 읽어주는 것인데(김숙령, 육길나, 2007), 영아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인과 함께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나누는 것은 영아로 하여금 읽기와 같은 경험을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며, 영아의 언어발달과 기술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Zeece & Churchill, 2001). 또한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정서적 일치감과 안정감을 주어

사회·정서적 관계의 기초를 형성해주며(Bloom, 1985), 즐겁고 부드럽게 책을 경험하는 것은 양육자와 영유아 간에 친근감을 형성하고 사회·정서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trickland & Taylor, 1998). 즉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해 영아들은 이야기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그림책을 읽어주는 교사 또는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그림책의 특성을 활용하여 영아의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상상력, 문제해결능력, 감정이입능력, 인성 발달을 도모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서정숙, 남규, 2010).

영아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인들은 유아들에게 그림책이 좀 더 즐겁고 풍성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읽어주기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그림책은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Dorman & Alvarez, 1989; Smardo, 1984). 그림책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내적인 심미감을 음악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활동은 유아의 문학적 상상력과 음악적 상상력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삶 속에서도 예술적 표현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강보라, 2011).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음악과 그림책의 통합적 경험과 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강보라, 2011; 김경희, 엄정애, 2007; 남윤희, 김금주, 2014; 류승희, 이승우, 2012; 목세은, 윤은미, 2010; 백지혜, 2009; 진정엽, 2013).

특히 그림책과 음악의 연결고리는 리듬에서 찾을 수 있다. 음악의 3요소 중 하나인 리듬은 본래 선율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의 그 규칙적인 움직임 의미를 의미한다(남광실, 1992). 그러나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연현상에서도 리듬은 존재하며 따라서 리듬은 초음악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유덕희, 1983).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과 언어는 모두 소리와 시간의 예술로서 문학의 도구인 언어는 음악적 개념인 리듬, 고저 및 강세 등 표현과 적용방식에 있어 음악과 많은 특성을 공유한다(McGirr, 1995). 즉, 음악에 반복적인 규칙과 리듬이 있는 것처럼 문학인 그림책의 언어에도 반복과 규칙, 리듬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유아는 그림책 속에 있는 반복과 리듬을 즐기며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며(임영심, 1996), 리듬을 활용함으로써 영아의 언어 발달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이미 국외에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리듬이 영아의 언어 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McGirr, 1995; Nazzi, Bertoncini & Mehler, 1998; Nordoff & Robbins, 1977; Patel, 2003; Patel, Gibson, Ratner, Besson & Holcomb 1998).

또한 리듬은 음악, 언어뿐만 아니라 신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보통 멜로디는 듣지만, 리듬은 느낀다고 표현한다(Phillips-Silver & Trainor, 2007). 이는

리듬지각이 근운동감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Radocy & Boyle, 2001).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발 구르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리듬과 관련된 신체 움직임은 리듬지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때 신체의 움직임은 리듬 지각을 위한 중요한 비언어적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다(Greenberg, 1979).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간의 리듬행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에서 음악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을 비롯한 음악교육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리듬 행동이 신체 움직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기반으로 음악 및 인간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조세은, 2012).

이와 같이 리듬은 음악과 언어, 신체의 공통특성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리듬을 활용한 교육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의 대표적 교수매체인 그림책 활동 연구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단지 음악활동과 연결하거나 또는 신체활동과 연결하려는 시도들은 많지만, 언어와 신체의 리듬적 속성에 주목한 그림책 활동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그림책 교육에서 리듬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달크로즈(E. Jaques-Dalcroze, 1865-1950)의 리듬교수법(Eurhythmics)에 두고자 한다. 달크로즈는 리듬을 읽고 그 리듬을 악기 또는 목소리로 읊기는 경험을 가능하게 했으며, 특히 신체, 모든 감각기능을 통한 리듬교육을 강조한 리듬교육의 선구자이다(Spector, 2007). 음악의 구체적 형식이나 어떤 제한을 둔 표현이 아닌 리듬에서 느껴지는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신체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하는 달크로즈의 교수법은 인간 발달의 전 시기 중 가장 감각이 예민하고 몸으로 세계를 학습하는 영유아시기에 적합한 리듬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리듬을 활용하여 그림책을 교육하는 것은 모든 연령에게 가능한 방법이지만, 연구자는 특별히 만 2세 영아를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만 2세가 되면 영아들은 리듬 발달 측면에서 규칙적인 리듬 박동과 패턴을 가지고 노래를 자발적으로 부를 수 있게 되고(Campbell & Scott-Kassner, 1995), 노래 부르기 발달 측면에서도 자연스러운 발성과 읊조리기(챌트), 아는 노래를 재구성하기, 동작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 동물이나 다른 사물의 소리 흉내 내기, 실제 소리를 흉내 내어 소리내기가 가능해진다(Young, 2003). 이러한 만 2세의 발달적 특성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하는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가 가능한 가장 기초 연령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이와 같은 리듬과 그림책의 기초적 만남에 대한 제시가 이후 모든 연령에서도 활용 가능한 변형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II장에서는 달크로즈의 리듬교수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달크로즈의 리듬철학을 준거로 만 2세 그림책의 리듬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IV장에서는 분석한 그림책을 언어 리듬과 신체 리듬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리듬을 활용하여 그림책을 읽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들이 그림책 읽기에서 보다 풍성한 언어적, 신체적, 음악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달크로즈 리듬교수법

“리듬은 질서와 균형의 표현이며 몸과 마음, 존재 자체를 꿰뚫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기질의 조화를 드러낸다.”

- 달크로즈 ‘리듬에 의한, 리듬을 위한 교육법(A Method of Education by and for Rhythm)’ 강연 중에서(Spector, 2007).

음악 교수법에 있어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인 달크로즈는 리듬은 멜로디보다 더 강력한 음악의 요소이며, 음악을 이루는 생명체이고, 모든 음악은 리듬학습에서 쓰이고, 리듬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주장했다(송덕희, 2007). 달크로즈는 리듬이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스며들어 있으며, 음악적 리듬의 인식이 신체 내의 동적감각(motor sensation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Dalcroze, 1970). 이 동적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운동감각(Kinesthesia)을 훈련해야한다고 보았는데, 근육운동감각은 인간의 오감 외의 여섯 번째의 감각으로 신체와 감각, 그리고 뇌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조직체계이다. 이는 우리가 음악 할 때 사용하는 모든 감각, 다시 말해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과 사고하고 지각하는 능력, 감정을 느끼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정재은, 2005). 이러한 조화 속에 인간은 음악을 듣고 느끼고 분석하고 내면화하여 음악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리듬을 익히기 위해서는 지적, 감각적, 감정적 단계의 리듬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경험들이 필요하다(Dalcroze, 1994). 달크로즈 의견에서 보면 리듬은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라 활기와 색, 그리고 음악의 박자와 같은 규칙적인 일에 흥미를 주는 동작의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이며 여러 가지 격렬함의 자극적인 흐름과 같이 리듬이 있는 움직임은 움직임이 없는 행동, 즉 총체적인 긴장과

이완의 두 역할 사이에 긴장과 이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달크로즈는 의식적인 움직임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 마음, 감정 사이에 흐름의 비율과 균형을 의미하는 데에 리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리듬은 시간-공간-힘 사이에 존재하나 행위의 많은 요소 사이에서 상호 작용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진다(문연경, 2007). 따라서 달크로즈에게 리듬은 일반적인 리듬의 정의인 길고 짧은 음의 시간적 구성을 넘어서 시간-공간-힘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리듬인 것이다.

달크로즈는 이와 같은 리듬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리듬을 교육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는 사람의 신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흐름결에 기초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유리드믹스(Eurhythmics) 리듬교육이 되었다. 유리드믹스에서 ‘유(Eu)’는 ‘좋다(Good)’의 의미이고, ‘리듬(rhythm)’은 그리스어 ‘리트머스(rhythmos)’에서 파생된 것으로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아름다운 흐름결’, ‘좋은 움직임’이 바로 유리드믹스인 것이다(김지수, 2012).

그는 유아들이 몸 전체로 음악에 반응하기 때문에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리듬’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발달시켜 유아들이 음악 개념들을 내면화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음 현상에 따라 걷고, 달리고, 짹짹거리는 등 여러 형태의 리듬 요소를 표정, 몸짓, 움직임을 통해 나타내고 학습되도록 하였다(김선희, 2001). 달크로즈의 리듬교육은 심박, 호흡, 걸음걸이 등과 같은 신체의 자연적 리듬에 의해 이루어지며, 영유아의 신체는 본질적으로 시간의 감각인 리듬의 본질적 요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전제를 두고 있다(Walker, 1984). 그리고 음악의 리듬에서 오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몸짓으로, 신체로 표현해내야 하기 때문에 리듬 표현을 위한 시간(time), 공간(space), 힘(energy), 균형(balance), 무게(weight), 유동성(plasticity)에 대한 이해와 민감한 반응이 요구되어지고 상상력을 통한 창의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다(국혜림, 2010).

달크로즈는 리듬의 요소를 34가지로 세밀하게 구분하였는데, 1) 시간 공간 힘 무게 균형 유동성/중력, 2) 규칙적인 박, 3) 빠르기, 4) 변화하는 빠르기, 5) 강약, 6) 변화하는 강약, 7) 악상, 8) 악센트에서 나타나는 리듬, 9) 마디에서 오는 리듬, 10) 쉼, 11) 지속, 12) 세분, 13) 패턴, 14) 고유의 박, 15) 악절, 16) 단선율 형식, 17) 축소, 18) 확장, 19) 리듬적 대위법, 20) 싱크페이션, 21) 반주가 있는 단선율, 22) 대위적 형식, 23) 카논, 24) 푸가, 25) 부가리듬, 26) 혼합박자, 27) 혼합 박, 28) 혼합 마디와 혼합 박, 29) 복합 박자, 30) 복합 리듬, 31) 해미올라, 32) 리듬적 변화, 33) 12음 나누기, 34) 루바토가 그것이다(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합회주,

2017). 이 모든 리듬에는 실제로는 리듬외의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등과 같은 개념들 역시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달크로즈의 리듬은 시간-공간-힘의 모든 맥락을 포괄하는 의미의 리듬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달크로즈가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그것의 실제 구현과 적용에 대해서는 이후 달크로즈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브람슨(R. J. Abramson)은 달크로즈의 리듬요소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부가리듬과 5가지 리듬의 세계를 추가하여 36가지를 리듬의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아르노프(F. W. Aronoff)는 리듬 외에도 가락, 음색, 구성과 구조를 세분한 음악개념을 사용하였으며, 미드(V. H. Mead)는 달크로즈의 리듬을 실제 교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정재은, 2005).

달크로즈의 리듬에서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리듬의 필수적인 또 하나의 힘을 현재의 일상을 표현하는 힘으로 정의하고, 모든 리듬의 소재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인데(정재은, 2005), 인간의 언어 속에서도 리듬을 찾아볼 수 있다. 시계 바늘, 사람의 걸음 또는 맥박 속에서 규칙적인 리듬 현상을 볼 수 있듯 사람의 말 속에도 리듬이 존재한다. 말-언어는 자음이나 모음이 일정한 강약이나 리듬에 맞추어 일련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이규식, 1991), 어떤 언어에서든지 말이란 일정한 리듬패턴을 가지고 있다(김두희, 이규식, 1997, 재인용). 특히 문장의 발화에는 어절이 존재하고 어절의 토막은 그 자체로 특이한 리듬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계 바늘, 걸음걸이, 맥박과 같은 리듬은 잘 인식하지만 언어에서 나타나는 말의 리듬은 잘 느끼지 못한다(이현복, 1982). 때문에 비가시적인 언어의 리듬을 보다 잘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달크로즈가 주장하듯이 가시적인 몸의 움직임, 신체리듬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으로 언어의 리듬을 잘 활용하면 신체의 리듬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달크로즈의 철학을 보다 구체화시킨 아브람슨의 말에서 더 잘 나타난다. 그는 말 리듬 등을 활용한 리듬표현 활동이 유아가 몸으로 리듬적 흐름에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청각각을 형성하고 동시에 신체적 협응력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Abramson, 1994). 즉, 이와 같이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은 서로 상보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도 이 둘의 관계를 잘 활용하여 교육한다면, 리듬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달크로즈의 리듬교수법을 바탕으로 언어 리듬과

신체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방법을 제안하여 영유아의 그림책 경험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영유아의 언어, 신체발달, 그리고 리듬감과 음악성 발달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달크로즈 리듬교수법을 바탕으로 만 2세 영아의 그림책에서 리듬적 요소를 분석하고, 분석한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연구자는 그림책의 선정, 그림책에서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면 추출, 리듬 표현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만 2세 영아의 발달 수준, 그림책의 내용, 리듬 표현 수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자세한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 그림책은 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내 생애 첫 책’ 2단계 도서이다. ‘내 생애 첫 책’ 지원사업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것으로 영유아의 생애 첫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생후 6개월~36개월 영유아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하는 생애주기별 독서활동의 첫 번째 단계 사업이다. 그 중 2단계(25~36개월)가 만 2세 영아들에게 적합한 그림책이며,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글자 수, 책의 두께, 그림 표현방식, 종이 재질, 교육적 내용 최소화 및 발달 단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협의에 의해 선정되었다. 선정된 8권의 그림책은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내용, 자아존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기본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 신체활동과 놀이 연계가 가능한 내용의 책들이다. 특히 2단계 영아들을 위한 그림책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 주변 사물, 식물, 동물에 대한 관심 및 상상력과 예술성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연합뉴스, 2015). 연구자는 선정된 8권의 그림책이 만 2세 영아의 수준 및 발달을 잘 반영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분석대상 그림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그림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그림책

그림책 이름	글	그림	역	출판사
‘똑똑똑(곰 아저씨의 새 집 이야기)’	나일성	나일성		파란자전거
우리 아기 코 잘 때 엄마는	노경실	박정완		뜨인돌 어린이
이제 너랑 말 안 해!	니콜라 킬런	니콜라 킬런	박선하	키즈김영사
어떤 날	성영란	성영란		반달
잠온다	이상교	김효은		웅진주니어
숲 속의 모자	유우정	유우정		아이세움
일요일이 좋아!	프란 프레스톤 개논	프란 프레스톤 개논	이영란	폴과 바람
아기 다람쥐의 모험	신경림	김슬기	안선재	바우솔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범주는 분석대상 그림책들에서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텍스트이다. 그림책의 텍스트의 내용은 글과 그림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책의 모든 텍스트에 리듬을 넣게 되면 자칫 영아들이 그림책의 내용과 흐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그림책에서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이 포함되어도 그림책 내용을 방해하지 않고 영아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림책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scene)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선정된 장면 속 텍스트를 리듬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글의 경우 장면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으면서 영아에게 친숙한 핵심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축약하여 영아가 함께 언어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그림의 경우 사물 또는 대상의 색과 크기, 공간적 위치의 대비가 선명하여 영아가 리듬의 요소를 느끼기 쉬운지 등을 고려하였다. 보통 페이지 번호가 없는 그림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석 장면은 분석결과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장신영, 신세니(2013)의 연구에서처럼 각 장면에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장

면 한 장을 1s로 정하였다. 예로, 연구결과의 『어떤날』 10s는 그림책 『어떤날』의 열 번째 장면을 의미한다.

3. 분석절차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선정된 8권의 그림책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리듬으로 표현하기 좋은 텍스트가 담긴 장면을 선정하였다. 각 장면은 달크로즈의 리듬철학에 의거하여 선정되었는데, 달크로즈는 리듬은 근육과 신경체계의 본질적인 성질이며, 신체적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시간-공간-힘의 문맥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그림책 텍스트에 존재하는 리듬을 시간, 공간, 힘으로 나누어 1차적 범주화를 하였다. 각 장면을 표시할 때는 세 범주를 각기 다른 색의 포스트잇으로 분류하였고 한 장면에 둘 이상의 범주가 중복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달크로즈의 리듬에 대한 저서와 달크로즈의 대가라고 불리는 국외 학자들의 서적(Chosky & Abramson & Gillespie & Woods, 1986; Aronoff, 1969; Mead, 1994), 그리고 국내 선행연구들(국혜림, 2010; 문연경, 2007; 이연경, 2002; 정재은, 2005)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시간, 공간, 힘을 각각 리듬의 요소인 박(beat)과 빠르기(tempo), 음의 길이(duration)와 고저(pitch), 강약(dynamic)으로 개념화하고 2차적 범주화를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그림책의 텍스트를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연구 결과로 제안하였다. 'Ⅲ. 연구 결과'의 소제목은 1, 2차 범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시간의 표현', '공간의 표현', '힘의 표현'으로 하였으며, 리듬을 활용하여 그림책을 읽는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사의 즉흥, 지식 및 기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은 장을 따로 두어 'IV.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에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를 진술할 때 리듬과 소리는 조아라(2015)의 표현방법에서 강한(거친) 소리(strong)와 약한(부드러운) 소리(soft)를 추가 보완한 <표 2>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읽기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표 2> 리듬/소리 표현방법

리듬/소리	표현
사분단위 박의 흐름	♪ ♪ ♪ ♪
팔분단위 박의 흐름	♪♪ ♪♪ ♪♪
긴소리(legato) / 짧은소리(staccato)	— / - -
높은 소리(high) / 중간 소리(middle) / 낮은 소리(low)	높 / 중 / 낮
큰 소리(forte) / 작은 소리(piano)	큰 / 작
강한(거친) 소리(strong)/ 약한(부드러운) 소리(soft)	강 / 부
점점 빠르게(accelerando) / 점점 느리게(ritardando)	— - - / - - -
점점 크게(crescendo) / 점점 작게(diminuendo)	□ / □
올라간다(up) / 내려간다(down)	↗ / ↘
점표(쉬는 박)(rest)	쉬

IV. 연구 결과

1. 시간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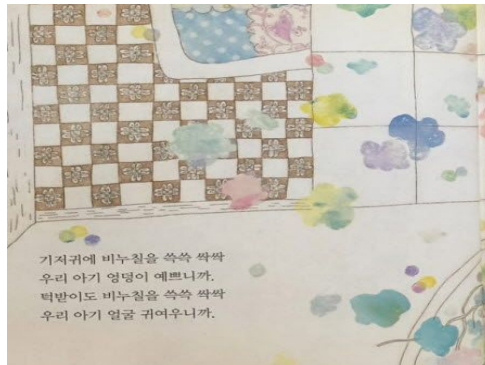
리듬의 요소인 시간은 박(beat)과 빠르기(tempo)로 표현할 수 있다. 앞서 모든 언어와 소리말에는 그 말 특유의 리듬이 존재한다(이현복, 1982)고 하였다.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의 가장 기초는 이 언어에서 리듬을 뽑아 언어가 지니고 있는 뉘앙스를 언어리듬과 함께 동작리듬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국어는 영어보다 리듬감이 적은 반면 각 음절이 나누어져 그 특성을 살려 리듬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가령 한 음절마다 한 박자씩 넣어 규칙적인 리듬을 경험시키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리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문연경, 2007). 이는 그림책의 모든 텍스트를 리듬으로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그림책의 제목을 소개할 때도 ‘뚝뚝뚝’은 “뚝뚝뚝 (♪ ♪ ♪)”으로,

‘숲속의 모자’는 “숲속-의 모자(♩♪♪♪)”로 리듬을 살려 말할 수 있다. 만 2세 영아의 경우 ♩박을 기준으로 두 배 빠른 ♩박과 두 배 느린 ♩박 내에서 언어리듬을 만드는 것이 좋으며(조아라, 2015),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박의 빠르기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림 1] 『어떤날』 10s



[그림 2] 『우리아기 코 잘 때 엄마는』 5s

[그림 1]에서는 강아지가 짖고 있는 그림과 함께 짖는 소리가 글로 적혀있다. 이 경우 강아지 소리가 가질 수 있는 리듬은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멍멍멍멍멍멍멍(♩♩♩♩)”, “멍 멍멍멍멍멍멍(♪♩♩♩)”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림 2]은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비누칠을 하는 ‘쓱쓱 쓱쓱’ 표현 또한 “쓱 쓱 쓱 쓱(♪♪♪♪)”, “쓱쓱쓱쓱쓱쓱(♩♩♩♩)”, 또는 “쓱쓱 쓱 쓱 쓱(♩♪♪♪)” 등 여러 가지 리듬으로 표현하고 변형할 수 있다. 교사는 그림책을 읽는 상황에서 텍스트에 박을 입히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언어리듬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때 교사는 아이들이 따라 하기 쉬운 리듬이면서 책 내용과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리듬을 즉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는 언어가 한정되어 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책 속에서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고 친숙한 사물이나 동물 또는 표현을 선택하여 리듬으로 읽어주는 것이 좋다. 영유아의 그림책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특히 많은데, 교사들이 꼭 글이 아니더라도 그림에 표현된 사람, 동물 또는 사물의 소리나 움직임을 리듬을 넣은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해 준다면 보다 풍부한 그림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에 입힐 박을 정했다면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빠르기를 결정해야 한다.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그림책 속의 상황은 빠르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림 3]의 경우 아기다람쥐가 산봉우리를 내려오는 것을 ‘쫘르르 쫘르르’로 표현하고 있는데, ‘쫘르르 쫘르르’가 주는 단어의 느낌은 아기다람쥐의 작고 빠른 몸짓을 연상시키며, 옆 장면에서는 아기다람쥐가 달려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때 교사가 “쫘 르 르 쫘 르 르(♩ ♩ ♩ ♩)”라고 모든 음절에 ♩박을 입혀 읽는다면, 아이들은 아기다람쥐의 빠른 몸짓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또 리듬을 “쫘르-르 쫘르-르(♩ ♩ ♩ ♩)”로 빠른 리듬을 섞었다 할지라도 교사가 이를 천천히, 느릿하게 읽어준다면 그 또한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는 리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를 보다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줄 수 있는 리듬과 빠르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림 3] 『아기다람쥐의 모험』 7-8s

교사가 적절한 언어리듬을 선택한 뒤에는 그것을 신체와 함께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쉽게는 손뼉치기, 무릎치기, 신체부위 터치하기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그림 1]에서 보았던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손뼉을 치며 “멍 멍 멍멍 멍(♩ ♩ ♩ ♩)” 또는 무릎을 치며 “멍멍멍멍멍멍멍멍(♩ ♩ ♩ ♩)”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림 2]에서 빨래하는 장면의 경우 빨래를 하듯이 두 손바닥을 마주하여 비비면서 “쓱 쓱 쓱 쓱(♩ ♩ ♩ ♩)” 또는 바닥을 문지르면서 “쓱쓱 쓱 쓱쓱(♩ ♩ ♩ ♩)” 표현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리듬의 표현방식에 따라 신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며, 이 때 영유아의 연령별 신체 인지 및 조절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이어지는 공간과 힘의 표현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 공간의 표현

리듬의 요소인 공간은 음의 길이(duration)와 고저(pitch)로 표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긴 소리/짧은 소리와 높은 소리/낮은 소리를 의미한다. 영유아에게 리듬의 공간적 요소를 표현할 때는 글 또는 그림에서 길고 짧음 또는 높고 낮음의 대비적인 부분이 확연히 드러날 때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교사가 언어리듬을 할 때도 이러한 대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주어야 영유아들이 쉽게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글보다 그림이 많은 영아 그림책의 특성 상 본 연구에서 길이 요소는 대부분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4〕 『숲속의 모자』 14s



〔그림 5〕 『숲속의 모자』 22s

〔그림 4〕의 반딧불은 하늘을 반짝거리는 점으로 수놓고 있는데, 작기도 하면서 짧은 반딧불의 반짝이는 움직임을 ‘반짝(-) 반짝(-)’하고 짧고 빠른 언어리듬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많은 반딧불이 함께 반짝이고 있으므로 ‘반짝(-)’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여 들려주면 영유아들이 반딧불의 반짝임과 움직임을 보다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의 장면에는 뱀이 등장한다. 뱀의 특징적인 긴 몸은 긴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글에서는 단순히 ‘뱀’으로만 표현되었지만 교사가 즉흥적으로 “뱀이 길(——)다”와 같이 뱀의 특징을 언어리듬으로 표현해준다면 그림책의 내용이 보다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그림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영유아는 가시적인 뱀의 길이와 비가시적인 말소리의 길이와 일치시킬 수 있으며 긴 리듬을 느끼고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요소 역시 대부분 그림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림의 위치상의 높낮이에서 오는 차이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외모 및 성격특성을 높낮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림 6] 『똑똑똑』 1-2s

[그림 6]은 전자와 후자의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땅에 있는 곰과 나무 위에 있는 새의 위치상의 차이가 소리의 높낮이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다. 교사는 대사에에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그림에 등장한 곰과 새를 소개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곰 아저-씨(낮: ㄴ ㄴ ㄴ 쉬)”는 낮은 소리로, “예쁜 노랑 새(높: ㄴ ㄴ ㄴ 쉬)”는 높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의 곰은 ‘아저씨’이며, ‘크고’, ‘어두운 색’에 ‘무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낮고 굵은 목소리와 매치되고, 새는 ‘작고’, ‘밝은 색’에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고 얇은 목소리와 매치된다.

그림에 따라서는 소리를 점차적으로 높이 또는 점차적으로 낮게 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림 7]은 펭귄 두 마리가 빙산을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장면이다. 교사는 이와 같은 장면의 경우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 올렸다가 내려 올 때는 점점 목소리를 낮게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펭귄이), 위로 위로 올라가(↗ ㄴ ㄴ ㄴ ㄴ ㄴ 쉬)”,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 ㄴ ㄴ ㄴ ㄴ ㄴ ㄴ)”)처럼 박에 맞춰 서서히 소리를 올리고 또 내리거나, 또는 간단하게 박은 없지만 느낌은 살리면서 “올라간다(↗)”, “썰~(↘) 미끄러졌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림 7] 『이제 너랑 말 안 해!』 1-2s

이러한 공간적 표현은 비유하자면 그림책의 내용에 색채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어둡고 밝은 느낌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간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책의 내용을 보다 실감나게 하며, 영유아들이 더 즐겁게 그림책 읽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공간적 요소를 신체리듬으로 표현할 때는 신체부위의 높낮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높은 소리에서는 머리/코/볼을 두드리고, 낮은 소리에서는 배/무릎을 두드리거나 발을 굴릴 수도 있다. 높은 연령의 유아의 경우에는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 신체 각 기관이 스스로 움직여보도록 할 수도 있다(머리를 좌우로 까닥이거나, 코를 쉴룩거리거나, 어깨를 번갈아 들썩일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쓸어내릴 수도 있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경우 그 반대로도 표현가능하다. 더 어린 영유아일수록 그림에서의 높낮이의 대비가 뚜렷하듯 신체에서의 높낮이의 대비도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영유아가 리듬의 공간적 표현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힘의 표현

리듬의 요소인 힘은 강약(dynamic)으로 표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큰 소리와 작은 소리, 강한 소리와 약한 소리, 거친 소리와 부드러운 소리의 대비가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 소리의 크고 작음은 앞서 높낮이에서와 같이 그림 속 동물들의 외형적인 크기의 차이 또는 그 외의 맥락들이 알려주는 동물의 특성들을 근거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한 장면 안에서 강약이 대비를 이루지 않더라도

각 장면의 상황 및 전체 이야기의 맥락에서 교사가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여 내용에 기대감과 긴장감을 더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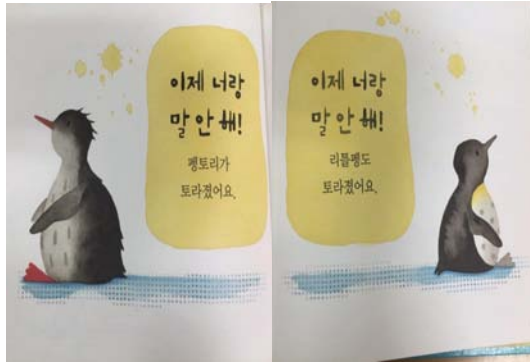
[그림 8] 『일요일이 좋아』 13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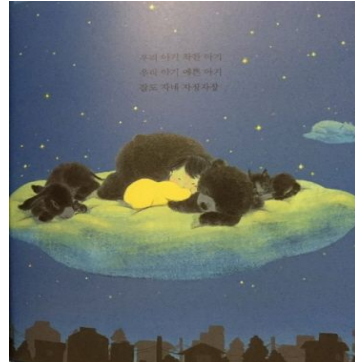
[그림 9] 『일요일이 좋아』 23s

[그림 8]의 고양이 형제는 크기 차이가 눈에 띈다. 이런 경우 교사는 큰 고양이는 더 큰 목소리로, 작은 고양이는 더 작은 목소리로 구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폐퍼는), 큰 고양-이(큰: 1 1 1 쉬)”, “(포는), 작은 고양-이(작: 1 1 1 쉬)”라고 언어리듬을 할 수 있다. 영유아의 그림책에는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기가 다른 동물들이 등장하는 경우에 교사는 목소리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꼭 주인공 동물이 아니더라도 그림 속에 있는 여러 동물들(글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동물들)을 크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목소리로 소개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그림 6]의 경우도 새는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교사가 그림에서 발견하여 곱과 높이 차이, 크기 차이를 고려하여 다른 목소리로 소개해준다면, 한 장면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한결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에서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쿵쾅!’으로 적혀있다. 우리는 ‘쿵쾅!’이 주는 느낌이 크고 거친 소리인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글이 주는 느낌을 살려 큰 소리로 말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 때의 ‘쿵쾅’은 [그림 8]처럼 한 장면에서 목소리의 크기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체 이야기 맥락에서 두드러지는 큰 소리여야 하므로, 교사는 이야기를 진행하던 자신의 목소리 크기를 유념하여 그 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한다. 이는 영유아들이 극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림 10] 『이제 너랑 말 안 해!』 15-16s



[그림 11] 『잠온다』 22s

강하고(거칠고) 약한(부드러운) 소리의 경우 큰 소리, 작은 소리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강하고(거칠고) 큰 소리, 약하고(부드럽고) 작은 소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분하자면, 큰 소리와 작은 소리보다 강하고 약한 소리는 말의 느낌을 살리는 데 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의 경우 두 펭귄이 토라지며 ‘이제 너랑 말 안 해!’라고 이야기 한다. 분명 교사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두 펭귄에게 다른 목소리를 부여하여 구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여기에서 강한 리듬을 실어 펭귄의 토라짐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너랑), 말 안 해!(강: ㄱ ㄱ ㄱ 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의 강조는 극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림 11]의 경우 아기와 꿈이 모두 잠들어 있는 모습은 책을 읽는 독자가 본능적으로 소리를 줄이도록 만든다. 이 때 글을 읽는 교사의 목소리가 극의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으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를 내야 한다. “자장 자장(부: ㄴ 쉬 ㄴ 쉬). 교사의 부드러운 소리는 듣는 영유아들에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전달되며, 그림의 포근한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힘의 요소를 신체리듬으로 표현할 때는 공간 요소를 표현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체 부위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 두드리는 손의 힘, 움직임의 크기가 더해지면 힘의 요소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8]의 큰 고양이와 작은 고양이를 표현할 때, “큰 고양이(큰: ㄱ ㄱ ㄱ 쉬)”는 양 손을 번갈아 무릎을 두드리며 말했다면, “작은 고양이(작: ㄴ ㄴ ㄴ 쉬)”는 검지손가락을 번갈아 코를 두드리며 말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큰 소리에서는 어깨를 펴고 몸을 크게 펴서 리듬을 말하고, 작은 소리에서는 몸을 웅크려 작게 만들면서 리듬을 말할 수 있다.

4.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이상에서는 리듬의 시간-공간-힘 요소를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리듬의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간의 표현, 공간의 표현, 힘의 표현으로 나누어 그림책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지만, 실제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혼합되며 병행되어 나타난다. 예로, 주인공인 곰의 이름을 소개할 때도, 이름 글자에 박을 넣고, 곰의 성별, 크기, 특성, 이야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리와 신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의 즉흥성(improvisation)이다. 교사는 미리 그림책을 보고 리듬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림책을 읽어주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즉흥적으로 리듬을 만들거나 신체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활용하여 그림책을 읽기 위해서는 교사의 리듬에 대한 선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리듬을 활용하여 그림책을 읽을 때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읽는 글을 만들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그림책에 적힌 글을 모두 읽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장면에서 글이 끝나면 반드시 다음 장면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아 그림책의 경우 글이 적고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림책 읽기가 매우 빨리 끝나 버린다. 하지만 영아 그림책에서 글이 적고 그림이 많은 이유는 영아들의 언어적 한계를 고려하여 그림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글에 없는 그림을 읽어줄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때 리듬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작은 그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림 속의 사물 또는 동물들의 이름 단어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전략이 결코 그림책의 전체 맥락을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아들이 그림책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며, 이야기가 가진 문학적 요소 또한 최대한 살려 영아들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가 교사의 일방적인 읽기가 아닌 영유아와 함께 읽기가 되기 위해서는 ‘리듬 주고받기’가 필요하다. 리듬에 익숙하고 연령이 높은 유아의 경우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 그림책을 읽거나 자신이 만든 리듬으로 교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나, 어린 영유아의 경우 교사가 만든 리듬을 함께 따라해 보며 리듬을 느끼고 표현해보아야 한다. 교사가 즉흥적으로 또는 만들어 온 리듬을

표현하면 영유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 이 때 교사는 자신이 표현한 리듬의 흐름이 영유아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리듬의 시간적 요소 안에서 ‘다같이’ 또는 ‘한 번 더’와 같은 지시어를 두 박 또는 한 박의 예비박 속에 넣어 전달할 수 있다(영아에게는 두 박의 예비박을 두는 것이 더 편안하다). 영유아는 이 지시어를 듣고 교사의 리듬을 따라하고 또 반복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뚝뚝뚝(♩ ♩ ♩ 쉬), 다같이(♩ ♩)”라고 하면 영유아가 리듬을 받아서 “뚝뚝뚝(♩ ♩ ♩ 쉬)”라고 말한다. 이 때 교사의 신체리듬이 동반된다면,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신체리듬을 따라한다.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을 할 때 교사는 영유아의 언어, 리듬감 및 신체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만 1세 이전의 영아의 경우 한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 습득이나 말하기 교육을 위해 언어리듬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발음기관이 미성숙하고, 음성을 인지하는 능력이 미발달되어 음의 생략, 전치, 중간음화 또는 첨가되는 경향이 높으며(오애순, 2004), 리듬감에 있어서도 음악의 리듬에 반응은 하지만, 리듬, 박자와 무관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김선희, 2001), 규칙적인 리듬 안에서 언어리듬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 2세가 되면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두·세 단어를 연결하여 기본적인 문장 형식의 말하기가 가능해진다(오애순, 2004). 또한 규칙적인 리듬박동과 패턴을 이해하고 리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어리듬을 활용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영아의 경우 쉽고 짧은 단어를 중심으로 한 마디의 언어리듬을 하는 것이 적합한데 반해, 연령이 높은 유아의 경우 두 마디의 문장도 언어리듬이 가능하다. 또한 리듬도 영아들은 ♩, ♩, ♩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 ♩, ♩ 등의 다양한 리듬의 표현도 가능하다. 신체리듬의 경우에도 어린 영아는 신체 부위의 인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손가락 또는 손바닥으로 신체 부위를 가볍게 터치하거나 두드리는 신체리듬이 적합하다. 신체인지가 잘 되는 유아의 경우 신체 각 기관의 조절력을 고려하여 각 기관을 스스로 움직여볼 수 있는 신체리듬을 활용한다. 리듬에 맞춰 머리를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눈을 깜빡일 수도 있다. 신체 조절력이 뛰어난 유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신체 부위를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다. 손뻑을 치면서 머리를 흔들고, 일어나서 어깨를 번갈아 들썩이면서 발을 구를 수도 있다. 이렇게 교사가 영유아의 신체발달 수준을 인식하고 있을 때, 즉흥적인 신체리듬의 상호작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를 위해서, 교사가 반복적으로 리듬을 사용하고 익

책 그림(일부 발췌)	*진하게: 신체, 이탤릭체: 언어리듬	유의점
	펭토리는 리틀펭에게 화가 났어. 이제 너랑, (고개를 저으며) 말 안 해!(강: ㄴ ㄴ ㄴ 쉬) 그러자, 리틀펭도 화가 났지. 이제 너랑, (고개를 저으며) 말 안 해!(강: ㄴ ㄴ ㄴ 쉬)	

V. 결론

본 연구는 음악과 그림책의 새로운 통합적 접근의 시도로, 달크로즈의 리듬교수법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2세 영아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리듬의 요소(시간, 공간, 힘)로 분석하고, 분석된 리듬을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유아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노래가 아닌 리듬에 주목하여 음악과 언어, 신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그림책 읽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많은 연구와 저서들에서 영유아에게 그림책은 언어능력, 이해력, 조망능력, 상상력, 정서발달, 창의적 표현력, 심미적인 감상력 등을 길러주는 중요한 매체임을 밝히고 있다(곽미자, 2003; 김세희, 2000; 이기숙, 1992; 이상금, 장영희, 2005; 이은영, 2000; 이춘희, 2005; McCormick & Mason, 1986; McGee & Richgels, 1996; Taylor, 1980). 유아교육에서는 공공연한 그림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합적 접근이 시도 되고 있고, 그 중 음악과 그림책의 통합 또는 신체활동과 그림책의 통합을 시도한 연구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노래를 활용한 노래 그림책 활동에 치중되어 있거나(김경희, 엄정애, 2007; 목세은, 윤은미, 2010; 장은주, 1997) 동작활동의 도구로 그림책이 사용되고 있는 연구들(강연홍, 2007; 안지영, 2010; 윤은영, 2011; 황주연, 이문옥, 2012)에만 집중되어 있고, 음악, 신체, 그림책이 모두 통합된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달크로즈 리듬교수법을 활용하여 리듬의 요소를 언어 및 신체로 표현하는 그림책 읽기 활동을 제안하고 있어 타 연구들과 차별성을 둔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밝힌 영유아에게 미치는 그림책의 효과성 외에도 음악성,

리듬감 등을 길러주며, 리듬을 영아들이 즐겁게 그림책에 몰입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또한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는 교사의 일방적인 그림책 읽어주기가 아닌, 교사와 영유아의 함께 읽기가 가능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 그림책의 내용을 읽어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읽어주는 글이 함께 필요하고(남규, 2009), 이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영아들과 책을 읽어주는 성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책읽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동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정아, 2006; Senechal, LeFevre, Hudson & Lawson, 1996; Morrow, 1983; Wells, 1985). 하지만 대부분의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영아들에게 그림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마치 의무인 것처럼 일방적인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다. 교사가 영아의 반응을 살피며 읽어주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반응적 상호작용(이지혜, 성소영, 2011)을 하기는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상호작용이며, 그림책 읽기 도중에 영아가 읽기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아와 교사가 함께 그림책의 내용을 신체리듬과 언어리듬으로 주고받고, 표현하는 경험은 능동적인 상호작용 전략이면서 동시에 영유아에게 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그림책 읽기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 신체, 언어가 통합된 리듬으로 그림책 읽기는 영유아의 음악성, 신체인지,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크로즈는 그의 리듬에 대한 철학을 음악교수법으로 활용하여, 유아들이 몸 전체로 리듬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켜 음악 개념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김선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달크로즈의 리듬에 대한 철학을 그림책 교육과 접목하여 음악성, 신체인지 뿐만 아니라 언어의 발달도 함께 꾀하고자 하였다. 영유아들은 교사가 그림책 속의 그림 또는 글의 시간-공간-힘을 고려하여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언어리듬을 따라하면서 언어의 리듬, 운율을 느끼고, 리듬 패턴을 이해하며, 반복적인 언어리듬을 통해 단어를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게다가 단어가 지닌 의미를 리듬의 요소로 표현함으로써 단어에 함축된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예: ‘달팽이’를 느린 리듬으로 표현하는 것은 ‘느리게 이동하는 동물’이라는 달팽이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단어가 가진 시간-공간-힘의 특성을 신체 부위가 가진 시간-공간-힘으로 표현함으로써 영아는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신체의 힘, 시간, 흐름, 공간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외부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 그림책을 분석하였으나,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방법은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발달의 모든 측면에서 영아보다 앞서있으므로 리듬을 활용하거나 그림책을 읽을 때에도 영아와는 다른 접근 방식과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유아의 그림책은 영아의 그림책보다 글이 많고 문장이 긴 특성이 있다(이대균, 백경순, 송정원, 이현정, 2016). 이에 교사들은 유아의 언어 및 리듬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문장 단위의 언어리듬을 제공하거나 둘 이상의 리듬패턴을 혼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아들에게는 신체를 인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체부위를 보다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체리듬을 제공해야 한다.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에 익숙해지고 나면 유아들이 직접 그림책의 내용을 활용하여 언어 및 신체리듬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 모두에게 활용 가능한 그림책 읽기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그림책 읽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신선한 접근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음악과 언어, 신체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리듬에 주목하여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과 음악, 신체, 언어가 통합된 그림책 읽기 방법이라는 점, 교사와 영유아의 함께 읽기로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영아에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영유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림책 읽기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리듬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리듬, 목소리 등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가시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교사의 즉흥적인 리듬 활용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 교사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달크로즈 리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풍성한 그림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는 바이다. 차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들에게 직접 실행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보라 (2011).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강신영, 신세니 (2013). '똥'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생명순환의 의미. **생태 유아교육연구**, 12(3), 57-80.
- 강연홍 (2007). 그림책을 통한 동작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곽미자 (2003). 동화를 활용한 교수방법이 유아의 동작표현 활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국혜림 (2010).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원리에 근거한 리듬학습 : 호두까기 인형을 중심으로.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4(2), 1-31.
- 권덕원 외 (2017).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경희, 엄정애 (2007). 노래 그림책이 걸음마기 영아의 읽기 흥미 및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8(1), 75-94.
- 김두희, 이규식 (1997). 언어 리듬 훈련이 청각장애아의 말의 강약 및 억양에 미치는 효과. **난청과 언어장애**, 20(1), 105-150.
- 김선희 (2001). 유아의 기초음악능력 발달을 위한 리듬학습법 연구 -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중심으로. **음악교육**, 1, 242-280.
- 김세희 (2000). **유아 문학 교육**. 서울: 양서원.
- 김세희, 현은자 (1996). 전래동화와 이솝우화의 인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연구**, 16(2), 5-25.
- 김정아 (2006). 영아 언어발달을 위한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모형의 적용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정원, 남규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교육 프로그램이 만 1, 2세 영아의 문학적 태도와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1(1), 105-130.
- 김주아 (2008). 그림책을 활용한 만2세 영아의 몸짓 언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지수 (2012). 달크로즈, 오르프의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지도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1, 2학년 리듬지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남광실 (1992). 리듬교육의 중요성과 개념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23(1), 31-49.

- 남규 (2009). 교사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영아의 언어발달 비교.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남윤희, 김금주 (2014). 그림책을 활용한 노래극 활동이 영아의 몸짓 언어와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3(2), 17-38.
- 류승희, 이승우 (2015). 노래를 활용한 엄마의 그림책 들려주기가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4(2), 1-21.
- 목세은, 윤은미 (2010). 노래를 활용한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만 2세 영아의 반응 탐색. **어린이미디어연구**, 9(2), 39-65.
- 문연경 (2007). **유리드믹스 : (영유아)교수법**. 서울 : 리더스하이
- 박선희, 김현희 (2006). **유아문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백지혜 (2009). 그림책을 이용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3(5), 189-212.
- 서정숙, 남규 (2010). **유아문학교육**. 서울: 창지사.
- 송덕희(2007). 유아음악교육에 있어서 리듬지도 방안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1(2), 93-107.
- 안지영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능력 및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연합뉴스 (2015). ‘국민독서문화진흥회, ‘내 생애 첫 책’ 도서 선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119500848.HTML?input=1195m>에서 2016년 6월 13일 인출.
- 오애순 (2004). 영아의 언어 발달을 위한 그림책 관련 표상활동의 구성 및 적용 효과. 박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유덕희 (1983).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개문사.
- 윤은영 (2011).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2(2), 45-59.
- 이규식 (1991). **청각. 언어장애아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 이기숙 (1992).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대균 외 (2016). **유아문학교육**. 경기: 공동체.
- 이상금, 장영희(2005). **유아문학론**. 서울 : 교문사
- 이송은 (2006). 2세 영아의 책에 대한 의미 탐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연경 (2002). 리듬감 신장을 위한 다양한 리듬 지도 기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22(1), 105-150.

- 이은영 (2000). 이야기 꾸미기 활동과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표현력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지혜, 성소영 (2011).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이 영아의 언어발달과 교사의 언어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0(1), 113-140.
- 이춘희 (2005). *유아문학교육*. 서울: 동문사.
- 이현복 (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4, 31-48.
- 임영심 (1996). 유아의 동화 표상활동에 대한 지도 방안 모색. *유아교육연구*, 16(2), 27-47.
- 장은주 (1997). 노래 그림책(Song Picture Books)이 유아의 읽기 및 음악적 잠재력(Aptitude)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재은 (2005). 달크로즈 교수법에서의 리듬의 원리와 그 적용. *음악교육연구*, 28, 127-154.
- 조세은 (2012). 신체움직임이 리듬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아라 (2015). 제 3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만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유리드믹스 교수법 제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진정엽 (2013).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과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주연, 이문옥 (2012).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1-21.
- Abramson, R. M. (1994). *Music as a second language*. Music & Movement Press.
- Aronoff, F. W. (1969). *Music and young children*. New York: Turning Wheel Press.
- Campbell, P. S. & Scott-Kassner, C. (1995). *Music in children - from preschool through the elementary grades*. New York: Schirmer Books.
- Chosky, L., Abramson, R. M., Gillespie, A. E., & Woods, D. (1986). *Teaching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Jersey: Prentice-Hall.
- Dalcroze, E., J. (1970). *Rhythm, music and education*. Rubenstein, H.F. (Eds.), London: The Dalcroze Society. (original work published 1921).
- Dalcroze, E., J. (1994). *Rhythmic Solfege*. Robert Abramson (Eds), New York: Music & Movemen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4).

- Dorman, P. E., & Alvarez, B. (1989). *Music in the classroom: A Journey for both children and teacher*. In S. Hoffman & L. Lamme (Eds.), *Learning from the inside in the classroom*. Portsmouth, NH: Heinemann.
- Goldfield, B. A. & Reznick, J. S.(1990). Early lexical acquisition: Rate.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171-184.
- Greenberg, M. (1979). *Your children need music: A guide for parents and teachers of young children*. N.J.: Prentice Hall.
- McCormick, E., & Mason, J. M. (1986). *Intervention procedures for increasing preschool children's interest in and knowledge about reading*. In W. H. Teale & E. Sulzby (Eds.),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 Norwood, NJ: Ablex.
- McGee, L. M., & Richgels, D. J. (1996). *Literacy's beginnings: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2nd ed)*. Needham, MA: Allyn and Bac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449-460.
- McGirr, P. L. (1995). Verdi invades the kindergarten. *Childhood Education*, 71, 74-79.
- Mead, V. (1994). *Dalcroze eurhythmics in today's music classrooms*. New York: Schott.
- Morrow, L. M. (1983). Home and school correlates of early interest in literature. *Journal of Educational*, 76, 221-230
- Nazzi, T., Bertoncini, J., & Mehler, J. (1998). Language discrimination by newborns: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rhythm.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4(3), 756.
- Nelson K. E.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 149. NJ: Prentice-Hall.
- Nodelman, P. (1988). *Words about pictures: The narra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London: The University Georgia Press.
- Nordoff, P., & Robbins, C. (1977). *Creative music therapy: Individualized treatment for the handicapped child*. New York: John Day.
- Patel, A. D. (2003). Rhythm in language and music.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999(1), 140-143.

- Patel, A. X., Gibson, E., Ratner, J., Besson, M., & Holcomb, P. J. (1998). Processing syntactic relations in language and music: An event-related potential stud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0(6), 717-733.
- Phillips-Silver, J., & Trainor, L. J. (2007). Hearing what the body feels: Auditory encoding of Rhythmic movement. *Cognition*, 105, 533-546.
- Radocy, R. E., & Boyle, J. D. (2003).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4th ed. Rhythmic Foundation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 Russell, D. L. (1991). *Literature for children*. New York: Longman Publishing Co.
- Senechal, M., LeFevre, J.A., Hudson, E., & Lawson, P. (1996). Knowledge of storybooks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vocabula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3), 520-536.
- Smardo, F. A. (1982). Using children's literature to clarify science concepts in early childhood programs. *The Reading Teacher*, 36(3), 267-272.
- Spector, I. (2007). *삶과 리듬 (하)*. 문연경, 김보영, 정옥경 역. 서울: 리더스하이.
- Strickland, D. D., & Taylor, D. (1998). *Family storybook reading: Implications for children, families and curriculum* In D. D. Strickland, & L. M. Morrow(Eds.), *Emerging literacy: Young children learn to read and write*. Newark, NJ: DE IRA].
- Taylor, B. (1980). *A child goes forgh: Acurriculum guide for teachers and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Provo, U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 Walker, R. (1984). *Music Education: Tradition and Innovat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Young, S. (2003). *Music with the under fours*. London Routledge Falmer.
- Zeece, P. D. & Churchill, S. L. (2001). First Stories: Emergent Literacy in Infants and Toddl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9(2), 101-104.

<그림책>

나일성 글, 그림 (2015). **똑똑똑(곰 아저씨의 새 집 이야기)**. 파란자전거.
노경실 글·박정완 그림 (2014). **우리 아기 코 잘 때 엄마는**. 뜨인돌 어린이.
니콜라 킬런 글, 그림 (2012). **이제 너랑 말 안 해!**. 박선하 역. 키즈김영사.
성영란 글, 그림 (2015). **어떤 날**. 반달.
이상교 글·김효은 그림 (2015). **잠 온다**. 웅진주니어.
유우정 글, 그림 (2013). **숲 속의 모자**. 아이세움.
프란 프레스톤 개논 글, 그림 (2015). **일요일이 좋아!**. 이영란 역. 풀과 바람.
신경림 글·김슬기 그림 (2013). **아기 다람쥐의 모험**. 안선재 역. 바우슬.

ABSTRACT

A study on the rhythm analysis and utilization method of infant picture books based on the Dalcroze teaching method

Cho A-Ra

Based on Dalcroze's method,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reading a picture book using rhythm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picture books for 2-year-olds or younger that were selected by the Institute for Promoting Reading Culture and the scope of analysis was all the texts that can express rhythm in the picture books which were analyzed using time-space-energy, the elements of rhythm by Dalcroze.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was designed by the researcher to synthesize studies on the rhythm elements of the Dalcroze crossing at home and abroad.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ways of expression using linguistic rhythm and kinesthetic rhythm were devised. Such reading method using rhythm can be a way that can integrate music, language, and body and it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usicality, linguistic development, and body perception of young infants. Also, it can enable active interaction between young infants and their teacher reading together through the experience of giving, receiving, and expressing rhythm. It is expected that this reading method will be able to make infants and children participate in picture book reading more actively and happily.

Key words: Dalcroze, rhythm, picture book, language rhythm, body rhythm

투고일: 2017년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17일(7월 22일), 게재확정일: 8월 7일